자력자강의 나라

차 례

머리말

20 세기와 21 세기 두세기에 걸치는 기간 조선의 력사에서는 위력한 무기인 자강력이 새롭게 출현하여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출현한 자강력은 신비스럽다할 정도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는 힘, 정신이며 그에 비길만 한 위력한 무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자강력을 떠나서 강성하는 오늘의 조선에 론할수가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습니다.》

자기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의 의미를 담고있는 자강력, 그것은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의 하늘가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강력제일주의기치가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이 도서에서는 조선의 어제와 오늘의 력사를 통하여

조선인민이 어떻게 자강력을 창조하였으며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 자력자강의 나라로 일떠세웠는가에 대하여 더듬어보게 된다.

1. 자강력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

력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왔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장구한 력사적기간 끊임없는 수많은 사색과 탐구속에 오늘 진보적인류는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접하게 되였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옳바로 개척하려면 남의 힘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기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것, 자기 힘을 키우는데 모든것을 동원하여 자체의 민족자강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하다면 왜 자강력을 키워야 하는가, 자강력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그토록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국력강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국력을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국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이에 심중히 대처하였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들마다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서로마다 달랐으며 그 결과 또한 각양각색이였다.

력사적으로 보면 민족국가의 국력강화를 위해 바쳐온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여있다. 한때는 번성하였던 나라들과 부유함을 자랑하던 민족들이 국력강화문제를 잘못처리하여 종당에는 국력이 쇠약해져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 전쟁과 략탈의 희생물로 되였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그 근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그들이 국력강화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연환경조건의 유리성과 풍부성과 같은데서 찾으면서 자기의것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려 한것이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원유가 많다고 하여 국력이 강하거나 부강발전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연환경조건의 유리성을 내들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힘이 약화되고 종당에는 다른 나라에 먹히우게 된다. 력사와 현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원을 수출하여 남의 무장장비와 완제품들을 수입해쓰며 발전을 말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은 실례가 수두룩하다.

주체사상과 그것이 구현된 조선의 현실은 국력을

강화하자면 다름아닌 자기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립장에서서 자체의 힘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력을 강화하는데는 자기스스로 힘을 키우고 강화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국력을 다지는것은 자신을 위한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야 하며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된다. 남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설사 다른 나라의 원조나 방조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언제나 부차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부적이다. 력사와 현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켜준 강대국도 없으며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19 세기 말 조선봉건왕조의 정상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 칠 때 갓 쓰고 하늘소 타고 음풍영월로 수백년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그러다가 동서방의 침략세력이

함대를 끌고 접어들자 나라의 문을 다 열어놓았다. 봉건조선은 외세가 마음대로 롱락하는 리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여버렸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력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며 사대가 뼈속까지 스며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남을 등에 업기 위하여 추악한 권력싸움,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래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였다.

결과는 명백하였다. 조선은 끝내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어제날의 조선의 경우만이 아니다.

20 세기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당시 한동안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수출산업을 발전시켜 일정한 경제장성을 이루었던 일부 동남아시아나라들은 경제의 자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미국의 금융술책에 의해 금융위기라는 경제적혼란과 파국을 당하게 되였다. 그 후과는 실로 엄중하여 그 나라들은 커다란 경제적위기에 빠져들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주와 번영을 이룩하려는 수많은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외세에 대한 의존은 파국적경제와 혼란만을 초래하며 나중에는 자멸에로 가는 길이라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살판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자주와 번영을 이룩하려면 자기 힘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 길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수 없다.

국력을 강화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는 자강력이다. 자강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자체로 민족간부들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다방면적이고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출수 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대담한 공격정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창조본때도 자강력에서 나온다. 자강력만이 살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를 바라는 민족이라면 자강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하려는 강한 의지와 이악한 노력, 바로 여기에 국력을 강화하고 부강번영하게 하는 근본열쇠가 있다.

자주와 정의를 사랑하고 진보와 번영을 바라는 나라와

민족이라면 대소의 차이를 불문하고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국가적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와 민족은 강해지게 되며 그 어떤 강국과도 당당히 어깨를 겨루게 된다. 남의 힘은 자기힘에 비할바가 못되며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극복못할 난관은 없다는 사상정신적의지로 분발 할때 강자가 된다는 진리를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외세에 대한 의존은 곧 망국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진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명백해지고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 지역들에서 그 무슨 《오렌지혁명》,《장미혁명》 등을 조작하여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해나서고 지역문제해결에 복잡성을 조성하여 왔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색갈혁명》의 후과로 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안정이 깨여지고 종족간, 교파간에 류혈적인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정치방식을 들이밀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실정에서 외세에 의거하여서는 그 어느때가서도 강한 나라로 될수 없으며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

제발로 걷지 못하고 남의 부축을 받고서야 걷는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그 어디에도 갈수 없다는것이야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남의 힘을 믿는 민족만큼 가련하고 연약한 민족은 없다는것. 남의 힘을 믿게 되면 자기힘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키우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남이 하라는대로만 하는 머저리가 되고만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할것이다.

자기 힘을 믿으면 강해지고 번영하게 된다.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라.

이것이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고 번영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오늘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새겨안아야 할 진리이다.

자강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위대한 힘

력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독립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 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길은 자력자강에 있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국력강화의 열쇠는 자강의 길에 있으며 자강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그러면 자강력이란 과연 어떤 힘인가

자강력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를 강하게 하려는 힘이 있다.

원래 자강력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로서 사람이 가지고있는 유일한 힘이다.

다른 생물학적존재들과는 달리 사람은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하여 정신육체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자기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이 엄혹한 자연과 복잡다단한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제기하는 요구이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가 스스로 자기의 비밀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을 개조하려는 인간에게 유리하게끔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제공해주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인간은 과학기술적으로나 사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다 강한 존재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자강력을 지닌 존재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자신을 건전한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갖추어 자신의 사상정신적 및 창조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가지고있었던 사상과 지식도 낡은것으로 되여 사상정신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한 그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

이런데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본성상 자연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될수록 자기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며 보다 건장한 육체적능력과 강의한 사상정신력, 보다 높은 창조적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사람은 보다 힘있는 존재로 되려는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지고 자체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노력이 없는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자체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느때가서도 건전하고 위력한 힘을 갖출수 없다.

자체로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이 해주려니하면서 기대를

가지게 되면 어느때가서도 자기를 강하게 할수 없다. 남을 믿게 되면 강한자도 약해지게 되고 자기를 믿게 되면 약한자도 강해지게 된다.

뭐니뭐니해도 자체의 노력이 기본이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의 공고한 집단인 나라와 민족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말하여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남을 넘겨다보는 경향이 나오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은 정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져 약소국, 약소민족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자강력을 갖추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자강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위대한 힘이다.

그러면 자강력이 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자강력이 다른 그 어느 힘과는 대비할수 없는 최강의 무기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자강력은 우선 자체의 힘으로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려면 자기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실지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도상에는 자체의 튼튼한 국력을 갖추는 문제가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강국을 일떠세우기를 바라는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서나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위력한 무기인 자체의 튼튼한 국력, 즉 강력한 정치경제적 및 사상문화적 잠재력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자체의 튼튼한 국력은 그 누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마련되지 않으며 또 그 누구에게 간청한다고 하여 손쉽게 해결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자체의 튼튼한 국력을 마련하는 길은 자강력을 키워 해결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묘술이 없다.

자강력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 자기스스로 강하게 하려는 힘으로서 여기에는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필요한 모든 비결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에서 자강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사람들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쇠약하게 하여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상적독소인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을 없애버리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려는 자주자립의 정신을 키워줄수 있으며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국력강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즉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주고 자주의 기치밑에 인민들을 단결시키는 문제 민족간부들을 육성하고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중요하게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이고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를 갖추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자강력은 또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가게 하는 기적과 비약의 힘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그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은 다른 나라들이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대결할 결사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한편으로는 부당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다른 편으로는 원조를 줄듯이 흰소리를 치고있다. 하지만 민족분쟁, 종족분쟁이 그칠새 없는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적사태는 자강력을 키우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 기만적인 원조에 굴복하는것은 곧 죽음이라는 피의 교훈을 주고있다.

제힘으로 강해지고 흥해지려는 기개와 투지가 있어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강권과 봉쇄, 회유를 단호히 쳐갈기며 부강의 한길로 나아갈수 있다. 혁명하는 인민은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원쑤들에게 바지까지 벗어주어서는 안된다.

강국을 일떠세우려면 여러 단계의 방대하고 어려운 투쟁과업들을 수행해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힘을 쳐다보면 사대주의, 패배주의밖에 나올것이 없으며 언제 가도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할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로 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피와 땀을 바칠 때 난관극복의 묘술과 방법론도 찾을수 있고 어떤 높은 목표도 점령할수 있다.

력사에는 조선에서처럼 중중첩첩한 시련속에서 거창한 시대적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부강번영의 한길로 전진하여온 나라는 없다. 지난 시기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참혹한 재난을 당하였지만 조선인민은 １４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 제국주의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끊임없는 핵전쟁위협과 제재봉쇄를 가하였지만 조선인민은 화를 복으로,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만들며 조선이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하였다.

조선인민의 투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자면 오직 자기의 강인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력사의 가시덤불을 헤치며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지름길이 있다.

자강력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나라의 물질경제적토대를 끊임없이 다져나가게 하는 원천이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자면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나라의 물질경제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이미 마련된 토대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하고 오늘의 승리가 더 큰 승리에로 이어지게 하는것이 주체적힘을 키우려는 자각과 의지이다.

혁명하는 인민들이 앞섰다고 하여 자만하지 않고 계속 분발하여 강성부흥을 이룩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 바로 자강력이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들이 몇배, 몇십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자기의것을 살리고 빛내이려는 열렬한 지향과 의지이다. 남의 번쩍거리는것에 현혹되여 자기의것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미 마련한 귀중한 토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다.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정신이 강할 때 축적한 힘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으며 높은 속도로 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조선인민은 지난 몇해사이에 군사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초음속비행기의 속도,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는 조선의 눈부신 현실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자강력이 어떤 추진력을 발휘하는가를 확증해주고있다.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인민

21 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세계에서 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동방일각에 자리잡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이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는 정신을 지니고 그것을 자신들의 모든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만난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확신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국제사회계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 이르꾸쯔크주 동부씨비리출판사는 인터네트 홈페지에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에서는 자강력이라는 말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후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이였다.》고 하였고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자강력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조선혁명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백승의 보검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추동력인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안아왔다고 전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선군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의 필승의 무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꽁고통신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보도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조선은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으로 정치사상적힘, 국가경제력, 군사력을 비롯하여 자체의 전반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있는 나라이다.

오늘 세상에는 근 200 개의 민족국가가 있다하지만 그 어느 민족국가도 자기 힘이 강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민족국가는 없었다.

인류력사가 생긴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그리고 시간의 루적과 더불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였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지만 끝내는 실현하지 못하여 부진하고있거나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있는 나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지 못하고있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것도 짧은 기간에 이룩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강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 조선은 오늘날 핵무기보다도 위력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위력과 자립적인 국가경제력, 강력한 자위적국방공업에 토대한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한세기전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렬강대렬에 들어서 세계를 일주하며 뽐내던 시기에 봉건사회의 낡고 진부한 토대상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어 있다가 힘이 약해질대로 약해졌으며 그런탓에 일제에게 쉽게 먹히워 력사무대에서 사라져가고있었다. 식민지경제를 가지고있던 나라, 쓰러져가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빈약하고 락후하기 그지없던 경제로 겨우 자기의 생존을 연명해가고있던 조선의 국고는 텅비여있었고 가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였다.

그러하던 조선이 한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약 공업화도 실현하고 거창한 사회정치변혁도 수행하여 정치경제군사력에서 제일가는 나라로 솟구쳐올랐다.

오늘 조선의 주체적력량의 위력은 막강하며 조선에는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지반과 막강한 군사력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져있다.

령토에 있어서나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고 자원에 있어서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의 전변.

이렇게 놓고보면 해당 나라의 국력은 령토와 인구수에 정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작은 나라도 강대한 나라로 될수 있고 덩지가 큰 나라도 약소국으로 될수 있다.

조선이 강국으로 될수 있는 위력한 무기는 무엇이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말할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첫번째로 주목하여야 하는것은 자강력의 정신, 자강력제일주의라는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국력을 강화하는 첫째가는 원동력이다.

원래 자기 힘을 키우는것은 해당 민족국가자신을 위한 일로서 그들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사업이다. 그것은 그 어느 다른 민족국가도 다른 민족국가를 대신하여 힘을 키워주지 않으며 또 키워줄수도 없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응당 자기자체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을 순간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하다면 자기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며 그것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힘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제일로 믿고 의거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힘과 기술, 자원이 아니라 바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이며 그것을 동원하는 길밖에 다른 묘술이 없다.

물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이 부족하거나 못할수도 있다. 그것은 흠이 아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 길은 열린다.

물론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힘은 들겠지만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리게 되면 한동안은 쉬울수도 있고 헐하게 국력을 키울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손에 자기의 명줄을 맡기는 길, 망국의 길이다.

뭐니뭐니해도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것이 제일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견인불발하여 자기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길로 나갈때 자주적존엄을 지키고 강대해질수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현실을 보라.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자강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였으며 장구한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왔는가에 대하여 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다.

2. 자력자강으로 새겨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

장구한 인류력사의 매 년대들마다에는 그 거대한 무게를 들어올리는 힘이 뻗쳐져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이 힘들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력사를 개척하여왔으며 오늘까지 생존과 발전을 면면히 이어져왔다.

조선인민은 자신들이 창조한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인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기풍인 자력갱생의 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고 현대조선의 력사를 새롭게 일변하였다.

20세기를 거치는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조선에서는 낡고 뒤떨어진 식민지봉건사회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전면적건설,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거창한 사회력사적변혁들이 수행되였다.

현대조선의 력사를 일변한 이 변혁의 나날들에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구현인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이 힘있게 맥박치고있었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은 조선인민의 투쟁과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어 예속과 굴종만을 알았던 수난많던 조선의 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년대로, 자주와 창조의 력사로 빛나게 한 승리와 영광의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하다면 그렇듯 위력한 원동력,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된것이였을가.

그 시기는 바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항일혁명투쟁시기였다.

항일의 전구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정신

무릇 력사를 변혁하는 위대한 정신은 고요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는 거창한 혁명실천과정에서 창조된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은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가장 간고했던 시기인 1930 년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지맥을 걷어안고있는 백두의 천고밀림들마다에는 고느적한 태고적정적을 깨뜨리며 대일항전에 일떠선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울리는 메질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에 따라 일제와의 항전을 선포한 조선인민은 백두밀림에 꾸려놓은 유격구들마다에서 일제와의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일제와의 전면항전, 그것은 총과 총, 불과 불의 대전이였다.

당시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 등장하여 제 2 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제는 그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 군사강국의 하나였다.

적수공권으로는 당시 강적이였던 일제와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수 없었다. 무장을 갖추어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무기가 필요하였다.

하여 조선인민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구호를 들고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도처에서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런데 그 숱한 무기를 어디에서 마련할것인가.

나라가 식민지로 굴러떨어졌으니 그것을 지원받거나 보급을 받을수 있는 정규군이라는것도 없었고 공고한 후방이라는것은 더구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기를 얻을 방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 길뿐이였다.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마련하는 방도가 탐구되였다.

당시 무기를 마련하는 방도의 하나는 적의 무기를 로획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그것은 희생을 동반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한정한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적들과의 혈전을 벌리였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피와 생명을 바치였다.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동시에 벌리였다.

자력갱생으로 무기를 만들기 위한 투쟁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낡은 사상적태도를 타파하는 치렬한 사상투쟁과정이였던것과 관련된다.

솔직히 말하여 당시 무기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던 시기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마련하려는 사상과는 거리가 먼 그릇된 사상적경향이 나타나고있었다.

그것은 무기를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마련하겠다는 사대의존적인 사상경향이였다.

그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이와 같은 사상적경향은 지난날 조선을 독립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렬강들을 비롯한 큰 나라의 힘을 빌어보려고 하였던 민족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였다.

지난 시기 민족주의자들은 남의 덕으로 혁명을 해보려는 사대주의사상을 가지고 자체의 력량을 마련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큰 나라의 힘을 빌어 독립을 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윌슨이 제기한 기만적인 《민족자결론》에 현혹되여 인민대중에게 무저항주의를 극력 설교하기도 하였으며 《청원》과 외세의존의 방법으로 독립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

식민지강탈야망에 불타고있던 제국주의렬강들에게서 도움과 방조를 받아 독립을 이룬다는것이란 포악한 승냥이에게 순한 양을 구원해달라고 청원하는것만큼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무한 짓이였다. 렬강들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였던 민족주의자들의 모든 시도와 행동은 종당에는 좌절과 실패만을 초래하였다.

교훈은 그들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불러일으켜 독립을 쟁취할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은데 있었다.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이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떠나서는 사회발전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데서 독립을 이룩할 그 무슨 기적의 힘을 바라는것은 자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짓이였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대주의적경향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도 나아가서는 자주의 기치밑에 시작한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었다.

물론 유격구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고있었던

사대의존적경향은 민족주의자들의 그것과 그 형태가 꼭 같은것은 아니였다. 다른것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있었던 사대주의적경향이 쏘련에 대한 의존심의 형태를 띠고있었다는것이였다.

이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은 원쑤와 싸우자면 수류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인 쏘련에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그 나라에 청원편지를 보내였다.

그 편지내용의 골자를 보면 일제와 싸우는데 무기가 필요하여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지으려고 하니 쏘련측이 그와 관련하여 도움과 방조를 주었으면 한다는것이였다.

참으로 순진하기 그지없는 편지였다.

청원을 한 그들은 이제나저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가 하여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고기다려도 종시 회답은 오지 않았다.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거나 해결할수 없다는 통지조차 없었다.

이러한 실태는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알려지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동된

심정으로 누가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주겠는가, 우리는 수류탄을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체의 힘으로 수류탄을 만들수 있는 병기창을 차려놓게 하시였다.

항일유격구의 대원들과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마련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우선 유격구인민들은 무기를 수리제작할수 있는 기지인 병기창(공장,일명 철공소)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당시 유격구들에는 병기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무기를 보장하기에는 그 장비수준이 너무나도 한심하였다. 이 철공소들의 초기수준은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를 벼려내는 정도였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대개가 쇠붙이를 다루어본 경험도 없고 더우기는 무기수리 같은것을 해본 전적이 한번도 없는 초학도거나 문외한들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풋내기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들이 일하는 촌야장간들에서 현대적인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이 만들어지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말할것도 없고 포와 그에

필요한 화약까지도 척척 제작되였다. 참으로 신비스러울 정도였다.

화약을 만들어내는 과정하나만 놓고 보기로 하자

사실 처음에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는 광산로동자들과 지하공작원들이 보내주는 화약으로 작탄을 만들고 탄알도 재생하군 하였다.

그러나 이 구입방법은 상시적인 위험을 동반하였고 모처럼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로출시킬 우려가 많았다. 이것은 유격구인민들로 하여금 종전의 구입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화약을 자체로 만들려는 결심이 세워지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니 배심이 생기고 좋은 방도가 나왔다.

화약제조의 력사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지하게 파고드는 과정에 그 기본원료인 염초를 민간에서도 생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으며 실천에 옮겨졌다.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여 끝내 리상적인 배합비률을 얻어냈으며 처음으로 작탄이 만들어졌다. 일명 유격대의 폭탄, 수류탄이라고도 부른다.

자료에 의하면 이 작탄에 의해 당시 연길지대의 적들은 수많이 녹아났으며 그에 넋을 잃고 《연길폭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부르면서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작탄은 연길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연길폭탄은 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화약이 제조되면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작탄과 함께 나무포도 만들수 있게 되였다. 나무포는 그 소리가 뢰성벽력처럼 요란하였다. 손으로 두드려만든 나무포가 위력을 내면 얼마나 내랴 마는 실지 전투에서 그 포로 한방 쏘게 되면 30 리밖에 있는 적들까지도 놀라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아무런 기술설비도 없는 유격근거지들에서 포를 만들어낸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였다.

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은 작탄, 나무포뿐아니라 줄칼과 같은 소공구하나를 가지고도 별의별것을 다 수리하였다.

그들은 줄칼로 쓸고 숫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과 진흙에 담금질을 하는 방법으로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하였으며 나중에는 기관총까지도 척척 재생시키였다. 무기제작과 수리에서 유격구인민들이 발휘한 혁명적적극성, 견인불발성, 창의창발성은 실로 세인을 경탄시킬만 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 기적의 비결이 바로 자력갱생에 있었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여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구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것도 생기지 않았을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여나지도 못하였을것이다.》

자력갱생의 정신,투쟁기풍은 이렇게 창조되였다.

항일의 전구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분야뿐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유격근거지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재봉대를 꾸려 군복을 자체로 만들었으며 병원들을 차려놓고 부상자와 환자들도 자체로 치료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수술칼, 핀세트 등의 의료기구들은 모두 병기창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들어낸것이였으며 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약들도 의료일군들이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체로 마련하고 제조한것이였다. 의사와 간호원을 데려올데가 없으니 그것도 자체해결이였다. 고려의사경력을 가진 한두명의 선각자들이 무수한 후비들을 키워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던 식량문제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였다. 각종 형태의 반군사조직들앞에 식량의

자급자족화목표를 내세우고 유격구의 농경지들에서 자체로 곡식을 심어먹도록 하였다. 결과 30 년대 후반기에는 후방부대를 파견하여 백두산기슭에서 전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였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장구한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였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좌우명으로 되였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하는 여기에 혁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본고리가 달려있었기때문이였다.

지난날 민족운동지도자들이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현혹되여 외세의존의 길로 줄달음친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력갱생정신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혁명을 촉진시킬수 없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는다.

참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투쟁기풍은 항일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이였다.

자력갱생의 정신, 투쟁기풍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가렬처절한 항일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고 그 위력이 과시된

자력갱생은 참으로 소중하였으며 해방후 조선인민은 그것을 불씨로 하여 새 조국건설의 열기를 거대한 불길로 타번지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안아온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는 장구한 조선혁명의 력사적년대들마다에서 그 힘찬 동음을 배가하며 높이 울려퍼졌다.

자강력의 나래펴고 천리마는 날았다

자강력은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과 혁신의 나래였다.

50년대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고있던 시기 자강력의 기상과 위용은 만리창공을 나는 천리마의 나래로 되여 힘차게 퍼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에 천리마를 탈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준것이 아닙니다. 말탈줄 모르는 사람을 남이 태워주면 떨어져 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천리마를 탔으며 계속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리고있습니다.》

원래 천리마라는 말은 조선에서 옛 전설로 전해져오는 말로서 여기에는 하루에 천리씩 달리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조선인민은 주체46(1957)년부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려는 지향과 열의로부터 출발하여 천리마운동의 정신의 불길을 지피고 전국도처에서 세차게 전개하였다.

천리마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력갱생의 운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자체의 힘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 운동이다.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진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전후의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게 하였으며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게 하였다.

그러나 처음 천리마운동이 본격화될 50년대 중엽 당시 조선의 사회경제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비록 3년간의 전후복구건설로 전쟁의 후과는 기본적으로 가셔졌다고는 하지만 경제형편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의 경제의 피해상이 너무나도 참혹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조선을 강대한 사회주의나라로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중대한 책임감을 지닌 령도자와 조선로동당에게 있어서 의거해야 할것은 오직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지닌 인민대중이였다.

일찍부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활동을 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몸소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그곳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호소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밖에 믿을데가 없다, 동무들이 계획보다 강재를１만ｔ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게 된다.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령도자를 우러르며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６만t의 공칭능력밖에 내지못한다고 하던 분괴압연기에서 １２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나래로 만리창공을 날아예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강선에서 이렇게 타올랐다.

강선에서 타오른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료원의 불길처럼 삽시에 온 나라에 타번져갔다.

김철의 용해공들은 당시 19만t의 선철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t의 쇠물을 녹여냈고 황철의

로동계급은 3년이 걸려야만 할수 있다던 용광로건설을 한해도 못되는 기간에 끝냈다.

이렇듯 자력갱생의 정신, 기풍으로 충만된 천리마를 타고 세계를 앞서 내달리며 조선인민은 자신들이 바라고 요구하는것이라면, 령도자와 조선로동당이 결심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였다.

천리마운동이 낳은 열매들중에는 가지가지의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수두룩하였다.

《천리마》호 뜨락또르는 그 대표적인 창조물들중의 하나였다.

솔직히 말하여 처음에 조선에서 뜨락또르를 생산한다고 할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시비하고 방해해나섰다.

그들은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자체로 뜨락또르를 생산하여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들이 만든 뜨락또르를 사가라고 하였으며 조선에서 뜨락또르 설계도면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로동당은 뜨락또르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그 중대한 과업을 조선의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충만되여있던 로동계급은 분발하였으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제작에 달라붙었다.

세계적으로 뜨락또르를 만드는 나라가 불과 １０여개밖에 안되던 때인지라 공업화의 력사도 없었던 조선에서 짧은 시일내에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든다는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게다가 뜨락또르의 부속품만 해도 무려 2 000여종이나 되였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지만 조선의 로동계급은 난관이 있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견인분발하였다.

기적과 신비의 힘, 만물창조의 위대한 원동력인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한다면 그 무엇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은 조선의 로동계급은 설계가 필요하면 뜨락또르를 분해하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설계를 하였으며 기대가 고장나면 다시 고치기를 거듭하면서 끝끝내는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첫 뜨락또르를 만들어내였다.

자력갱생의 산아인 첫 뜨락또르는 천리마운동을 상징하여 《천리마》라고 명명되였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지만 조선의 로동계급은 고기배도 전기기관차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제작하였다.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자면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고기배가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전후 조선에서는 다른것도 그러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고기배가 없었다. 전쟁시기에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쓸 만한 고기배들은 다 마사지고말았다.

하여 조선에서는 요구되는 고기배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청한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4년후에 기껏해서 뜨랄선 4척을 주겠다는 막연한 대답을 하였다. 뜨랄선 4척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인다는것은 어방도 없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로동계급들속으로 들어가시여 자체의 힘으로 고기배의 기관으로 쓸 열구기관을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시였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배기관을 만들어 그것으로 고기배를 무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있다고 결의하면서 달라붙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끝내 열구기관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뿐인가.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있었던 조선의 로동계급이였기에 아무리 복잡한 전기기관차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것은 결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철도전기화를 실현해야 할 과업이 나섰는데 이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기기관차가 많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필요되는 수많은 전기기관차들을 다른 나라에 계속 손을 내밀면서 사다쓸수는 없었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자체로 전기기관차를 만들 대담한 결심을 내리고 필요한 설계도면을 어느 한 나라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사는 조선에서는 자체로 전기기관차를 생산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생산하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이발이 없는데 어떻게 콩을 먹을수 있겠는가 하는 어조였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기관차를 사다쓰라고 하였다. 그때 조선의 형편에서 필요되는 많은 전기기관차를 사올 형편이 못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학업중에 있는 대학생들과 해당 공장의 기술자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설계를 하여 기관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술자들도 20대의 젊은 사람들로서 전기기관차에 대한 전문기술과 그것을 만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전기기관차를 만드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전기기관차를 만들자면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부속품만 하여도 3천여개 들어가는 고속도차단기를 비롯하여 고도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요구하는 1만 4천여종에 무려 18만개나 되는 부속품이 들어가야 하는 전기기관차이니 그 기술적어려움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참으로 헐치 않은 일이였지만 조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이 안겨준 하늘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떨쳐나섰다.

수십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만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고 하던 전기기관차의 고속도차단기를 만들어내였으며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의것보다 값싸면서도 1.5배나 더 능력을 내는 전기기관차를 기어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야말았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그 기적은 전기기관차를 생산할수 없다고 장담하였던 그 대사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전해진데 의하면 그때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그 대사는 조선의 로동계급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생산공장에 달려나왔다고 한다.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자주의 한길로만 달릴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인양 붉은기를 앞머리에 달고 거연히 서있는 전기기관차를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입빠른 망언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기기관차에는 《붉은기》호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이렇듯 남의 힘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을 한 결과 뜨락또르, 고기배, 전기기관차이외에도 불도젤, 기중기차를 비롯하여 일단 당에서 과업을 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였다.

자력갱생의 넋을 지닌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들인 《승리-58》자동차, 《천리마》호 뜨락또르, 《붉은기》호 전기기관차가 조선의 대지를 기세좋게 내달리였으며 그와 함께 《붉은별 58》불도젤, 《천리마》호 굴착기의 동음이 지축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금속, 기계공업분야들에서 타오른 자력갱생의 불길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사업의 전령역에 걸쳐 세차게 타번져갔다.

조선의 대지우로 전설의 천리마, 기적과 혁신의 천리마가 나래를 한껏 퍼덕이며 창공높이 솟구쳐올랐다.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자본주의나라들이 몇백년이 걸려서야 실현할수 있었던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당시 전해진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공업화완수의 전해인 주체 58(1969)년 조선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국내자급률이 98.1%에 이르렀으며 주체 45(1956)년에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34%를 차지하였던 공업의 몫이 이해에는 74%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사회주의공업화완수의 전기간 해마다 조선의 공업발전속도는 평균 19.1%라는 놀라운 수자를 기록하였다는것이다.

하기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수된 해인 주체 59(1970)년에 이르러 조선은 해방전인 주체 33(1944)년 한해동안의 생산물을 단 12 일동안에 생산하게 되였으며 인구 1 인당 중요제품생산량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당당히 이르게 되였다.

하기에 한 외국인은 너무나도 빠른 시기에 공업화를 완수한 조선의 현실을 두고 《선행한 공업화의 경험과 공식을 가지고 조선의 공업화를 보려는것은 그자체가 벌써

연막속에 들어가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격찬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페허우에 천리마가 나는 격동적인 시대가 펼쳐진 조선의 이 현실. 진정 그것은 생명체가 물과 공기를 떠나 살수 없듯이 자력갱생이 없으면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삶과 투쟁의 진리로 간직한 조선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세계사적인 기적과 혁신의 서사시였다.

격동적인 천리마시대에 조선인민은 이렇게 웨쳤다.

《한걸음 떼여 천리에 다닫는다. 두걸음 내치면 만리도 간다. 하루 한꺼번에 10년, 20년을 사는 조선, 우리의 현실은 쏜살같이 전진한다. 어제가 벌써 옛날이다! …1956년 12월, 영명한 당이, 수령이 마련하고 펼쳐놓은 이 나라의 천리마시대, 슬기로운 조선의 근로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천리마운동—그것은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래치는 영웅조선의 기상이다. 이 나라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 불굴의 기백, 아름다운 리상의 발현이다. 당의 의지, 당의 숨결이다.》

오늘날 조선의 위대한 상징물인 천리마동상을 바라보면서 조선을 찾아온 외국인들은 때로 이렇게 물어보군 한다.

천리마동상에는 왜 고삐가 없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주체의 기치높이 천리마가 가는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며 조선이 달리는 승리의 그길에는 사소한 침체나 답보도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자강의 위력으로 이룩된 다계단의 전변

자력갱생은 20세기 조선에서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력사를 통하여 확증된 이 진리는 20세기 90년대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가장 엄혹한 행군으로 알려졌던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사회주의강국의 포성이 힘차게 울린것을 통하여 더욱더 뚜렷이 확증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사회주의운동상에서는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을 기화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기치를 꿋꿋이 휘날려나가고있던 사회주의조선에로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정치적붕괴를 노린 심리모략전과 군사적침략책동, 경제제재와 봉쇄, 사상문화적침투책동 등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력사상 가장 악랄한것이였다.

하여 조선인민앞에는 엄혹한 난관이 조성되였으며 조선인민은 그것을 극복타개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투쟁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진행하고있는 고난의 행군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력사적인 행군입니다.》

원래 고난의 행군은 3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행군이다.

이 행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주체27(1938)년 12월 상순부터 이듬해 3월에 걸치는 100여일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로를 헤치며 낮과 밤을 이어가며 남패자로부터 압록강연안일대에로 진출한 행군으로 조선혁명의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할 목표를 내세우고 수많은 대병력으로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전면적인 군사적공세를 감행하는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러한 정황속에서 100년래의 대강설로 눈이 키를 넘고 령하 40° 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설한풍을 이겨내며 행군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금도 락망하지 않았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굳센 투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불사조처럼 싸워 승리하였다.

고난의 행군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90년대 중엽에 와서 다시금 지난 시기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것은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관련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여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나가야 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나라의 정치군사정세가 엄혹해지고있는데다가 몇해째 계속된 혹심한 자연재해가 엄중히 겹쳐들어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이 조성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어려워졌다.

다른 나라들같으면 벌써 열백번도 국가조락과 붕괴를 당하였을 엄혹한 시련이 조선인민앞에 가로놓이게 되였다.

사실을 말한다면 조선에서 전후복구건설시기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 시기 고난의 행군기간이 그보다 더 어려웠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때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수도 없었다. 조선은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야 하였으며 앞길을 열어나가야 하였다. 조선인민은 주저앉아 한탄하지 않았으며 분발하여 일떠섰다.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를 지키며 존엄있게 살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지 못하였으며 그앞에서 수그러들었다.

조선인민에게 이렇듯 강의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간직될수 있은것은 조선인민의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과이다.

당시 그이께서는 고난의 행군초기에 부닥친 난관을 어떻게 뚫고나가겠는가 하는것을 두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다가 자력갱생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자강도를 본보기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것을 결심하시였다.

자강도인민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배를 곯으면서도 중소형발전소와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적은 부침땅을

가지고도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추운 겨울에 썰매나 발구로 거름을 실어내였다.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기대를 세워서는 안된다, 굶어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터에 달려나가 기대를 돌리였다. 자력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자강도인민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였다.

자강도인민들은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남에게 식량을 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구하러 다닌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으며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자강도사람들속에서 자력자강의 정신,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데서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씨앗으로 하여 온 나라에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에게《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락관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를 안겨주시고 이 신념의 구호드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를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과감하고도 불면불휴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는 빛나는 결과를 안아왔다.

조선인민은 지난 30 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마찬가지로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마침내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제끼였다.

중중첩첩의 짙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조선의 하늘가에 사회주의강국의 포성이 높이 울리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우주정복구상에 따라 주체 87(1998)년 8 월 31 일 첫 시험위성《광명성 1》호를 쏘아올려 단번에 우주궤도에 진입시키였으며 그후 주체 98(2009)년 4 월 5 일 《광명성 2》호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하여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으로 되여 세계의 6 대위성발사국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위성발사성공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 투쟁기풍의 거대한 위력,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의 뚜렷한 증시였다.

이에 화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전구들마다에서 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경제가 활기를 띠고 하나하나 일떠서게 되였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숨죽은 공장들이 하나둘 일떠서고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새로운 전진의 동음, 강국에로의 힘찬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금속, 기계,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이 실현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졌다.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제철, 제강부문에서 콕스를 쓰지 않고 자체의 풍부한 자원인 석탄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방법이 완성된것이다.

주체철생산방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전통적인 철생산방법에서처럼 콕스를 쓰지 않고 조선에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주체철생산방법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생산방법으로서 조선에서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된다.

주체철생산방법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그 빛나는 계승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건국의 첫시기부터 자체의 연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원한의 원철로를 폭파하도록 하신 그때에 벌써 조선식의 제철법으로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고 조선로동당 제 5 차대회에서 자체의 원료, 연료에 기초한 야금법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금속공업발전의 력사를 거슬러볼 때 근대적인 야금공업의 출현은 콕스의 개발과 련결되여있다.

콕스는 력청탄가운데서도 휘발분산출량과 점결성이 높은 석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가열하여 얻는 다공성탄소질연료인데 만드는 방법을 보면 나무로 숯을 구워내는것과 류사하다.

석탄을 건류하여 얻어내는 고온콕스가 개발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으로 철을 녹이는 근대야금공업이 출현하였다.

그때로부터 옹근 한세기를 두고 콕스가 없이는 야금공업이 존재할수 없는것으로 인식되여왔다. 그런데 조선에는 콕스의 원료인 력청탄이 없는것으로 하여 콕스자체를 수입하든가 아니면 력청탄을 들여다가 해탄로에서 콕스를 구워내야만 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금속공업을 일떠세우는 첫시기부터 콕스가 아니라 자체의 연료에 의거하는 야금공업을 건설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이 사업을 줄기차게 내미시도록 하신것이였다.

콕스가 없이는 철을 녹이지 못한다고 머리를 젓는 사람들에게 야금공업이 유럽이 아니라 조선에서 나왔더라면 콕스가 없이도 철을 녹였을것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연료에 의거한 야금공업을 건설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대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결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드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철생산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철생산공정과 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자력갱생으로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완성하기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와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배짱은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얼마 안되는 기간에 종전의 낡은 철생산공정과 방법이 없어지고 주체철생산공정에서 완전한 혁명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생산공정과 방식이 확립됨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무연탄만 대주면 주체철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주체철생산뿐이 아니였다.

전국도처에 자체의 힘으로 수많이 건설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이 은을 내여 전력생산이 늘어났으며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속에 CNC기계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이 연구, 개발생산되고 토지정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사회주의조선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에로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세계는 다시한번 놀랐다.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자강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에로 솟구쳐오르는 조선인민을 두고 세계는 격찬하였다.

이 시기에 과시된 조선인민의 자력갱생의 힘, 그것은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 세계사적인 기적을 안아오게 한 위대한 창조와 기적의 힘이였다.

조선인민은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자강력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지닌 인민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불굴의 정신력을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하지 못한다는것을.

3. 전통으로 열어가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

21 세기 새 세기를 맞이하여 12 번째로 되는 해인 주체 101(2012)년에 조선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조선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다

실로 21 세기 세계정치풍파를 헤치며 조선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가실 그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조선인민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빛나게 구현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자강력제일주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로 사회주의조선을 강국로 전변시키고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그이의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다.

자강력을 제일가는 전통으로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의 력사적발전로정을 통하여

자강력이야 말로 조선의 힘, 제일가는 무기이며 자강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것을 가슴속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강력은 오늘 끊기지 않는 불변의 위대한 전통으로 빛나고있다.

원래 전통이라는 개념은 지난 력사적시기에 형성된것이 하나의 계승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다. 전통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더불어 대를 이어 끊임없이 전해진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사회생활의 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자기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계승하면서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자기의 옳바른 전통의 명맥을 잃지 않고 면면히 이어온 민족일수록 보다 강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옳바른 전통이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 고귀한 밑천으로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며 오늘과 래일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옳바른 전통을 가지고있는 사회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오늘과 래일이 없고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없다.

지난 시기 조선인민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자력갱생을 자기의 유일한 혁명의 전통으로 삼고 그것을 면면히 이어왔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력갱생이 있었기에 강도 일제를 타승할수 있었으며 그 전통을 이어 모든것이 재더미로 화한 페허우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가지고 투쟁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힘,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면서 그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전면적부흥을 안아오는 활로를 찾고있다.

하다면 조선인민이 자강력을 자기의 고유한 전통으로 여기게 된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것인가.

그것은 자강력제일주의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상정신력과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게 하는 기적의 원천인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고있는데 있다.

사상정신력은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자강력에서 그 정수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에 대하여 말할때 사상정신적힘과 육체적힘을 들수 있으나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상정신적힘이다. 그것은 사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사상정신적힘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활동하는것과 관련된다. 인간이 가지고있는 사상정신적힘은 육체적힘에 대비할바가 못되며 그것이 일단 발휘되게 되면 그 어떤 장애와 도전도 물리치고 어려운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상정신력을 지니고 지난 기간 어려운 혁명의 준령들을 성과적으로 넘고헤쳐왔다.

지난 시기 대국주의자들이 온갖 감언리설과 회유기만을 다 써가면서 쎄브에 들것을 강요할 때에도 자립적경제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였다.

대국주의자들이 이러저러한 요구조건을 내대면서 조선에 주게 되여있었던 경제적물자들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립경제를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조선인민은 사상에서 주체확립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식의 경제를 일떠세우는 길만이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무궁번영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대국주의자들의 비난과 방해책동이 계속되였지만 굴복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자립경제의 토대를 하나하나 닦아나갔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력은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낳았다.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강의한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조선을 전설속의 천리마가 현실에서 나래를 편 기적과 비약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사상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력은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자강력에서 또 하나의 정수를 이루고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력이라고 할때 그것은 자연과 사회발전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는 힘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과학기술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개조해나갈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없다. 이것은 나아가서 전반적국력을 제대로 갖추어나갈수 없게 한다.

조선에서는 지난 시기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 자신들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높여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여왔다.

물론 이 과정에 난관과 시련이 없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각이한 명목의 악랄한 제재기구들을 동원하여 조선과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제재와 압박책동에도 끄떡없이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전진을 조금도 가로막지 못하였다.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고있는 오늘날 조선은 핵심기초기술과 응용과학기술을 비롯한 세계첨단과학기술의 명맥을 쥐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선의 과학기술력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여러차례의 광명성계렬의 위성발사를 자체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성공시킨 하나의 사실만가지고서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면서 그 위용을 과시하고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을 그쯘히 갖추고있는데 있다.

자강력에 의한 21세기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제시

오늘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은 일찌기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정치적구호로 전면에 내세운것은 공화국창건 50 돐을 맞으면서였다. 그해 9 월 9 일 《로동신문》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라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국을 건설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 창조와 건설의 구호이다.》

그후 주체 88(1999)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가 제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민중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그것은 사상의 강국, 경제의 강국, 군사의 강국을 그 본질적징표로 하고있다.

사상의 강국, 경제의 강국, 군사의 강국을 징표로 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금까지

성과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고 경제적인 잠재력과 능력도 훨씬 높이도록 하시였다.

그러던 도중 주체 100(2011)년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는 렬차에서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서거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조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인민앞에는 선대수령의 한생이 깃들어있는 고귀한 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에서 21세기 사회주의강국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이 사상은 일찌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고 군력을 강화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강국건설의 설계도따라 그이께서 하여오신 방식대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는 그이의 령도방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시던 방식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조선인민이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다른 나라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에 의거하여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는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자력갱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고 조선인민의 준엄한 투쟁력사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조선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외세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력의 원칙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구상에 탄생시켰으며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되는 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그것을 만방에 빛내이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께서 사회주의건설력사의 전행정에 견지하여오신 자력갱생에 나라와 민족의 활로가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계신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고 언명하시여 자력갱생을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방도로 내세우고 있음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강국을 그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외자에 의존해서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경제분야에서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뚜렷이 증명하고있다.

지난 20 세기를 이어 21 세기에도 일어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지난 세기말 대혼란으로 불리우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러하였으며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걸었다가 심각한 경제적진통과 혼란을 겪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강국건설을 위한 그이의 로고와 심혈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나라의 국력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며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도 그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견지명의 예지로 현대세계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였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두뇌전, 실력전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 자체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경제강국을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기에 조선은 그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쳐가고있다.

4. 자강력으로 더욱 강해지는 조선의 국력

자강력은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신비의 힘이며 국력강화의 힘있는 원동력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주저앉거나 위축된것이 아니라 자강력을 천백배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 위력으로 공화국의 국력을 굳건히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습니다.》

자강력은 국력을 강화하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국력이라고 할때 그것은 사상과 정치, 경제와 문화, 군사와 외교의 모든 면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가지는 힘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나라와 민족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고 그 발전을 담보해주는 원천이 바로 국력이다.

국력의 강약정도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원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국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력이 약한 나라와 민족은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할수 없지만 반대로 국력이 강한 나라와 민족은 영원한 무궁번영을 이룩하게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들간의 치렬한 국력경쟁이 벌어지고있는 형편에서 국력경쟁에서의 승패는 결정적으로 국력강화에 달려있게 된다.

그러면 국력강화의 기본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 뭐니뭐니해도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강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강력을 키워나가는 길만이 국력을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은 자강력으로 보다 굳건해진 정치사상위력과 과학기술적 및 경제군사적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자강력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포괄하는 조선인민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억척으로 다져진 정치사상적위력

조선에서는 자강력이 강화되고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력중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이 억척같이 다져졌다.

자강력은 사회와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힘이며 그 위력은 곧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나타난다.

자강력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그 정수를 이루고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강력의 위력이자 곧 정신력의 위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모든 성원들속에서 자강력의 정신이 높이 발휘될 때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으며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틀어쥐여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가지고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력량을 마련하여 자기 운명을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된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은 자강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정치사상적면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도달할수 없는 지위에 올라섰다.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대중의 견인불발의 위대한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면서 사상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대고조를 일으켜나갈수 있다.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조선혁명앞에는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었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힘의 대결은 더 말할것도 없고 원료, 연료난과 식량난으로 하여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지고말았을 그런 역경이였다.

이러한 최악의 역경에서 조선인민을 불사신과 같이 일떠세운것은 그 어떤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견인불발의 정신력이였다.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을뿐아니라 역경을 순경으로,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강국건설에로 비약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전체 조선인민은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중요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있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지펴지고있다. 오늘의 이 자랑찬 성과는 바로 전체 인민이 비상한 혁명적각오와 결사의 각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떨쳐나선 결과이다.

이 과정에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공세와 심리적모략책동에도 끄떡없는 투철한 신념의 강자,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다음으로 조선은 위대한 정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조선은 사상강국일뿐아니라 정치강국이다.

오늘 세계에는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큰 나라의 정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치후진국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굳건히 수호하며 세계의 자주화흐름을 앞장에서 주도해나가고있다.

특히 전체인민이 당과 수령과 혈연의 뉴대로 굳게 이어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선것은 정치강국으로서의 조선의 뚜렷한 위상으로 되고있다.

정치강국으로서의 조선의 뚜렷한 위상에 대해서는 오늘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과감히 헤쳐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모습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주체 105(2016)년 8 월 29 일부터 9 월 2 일사이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과 무더기비로 조선의 북부지역이 커다란 자연재난을 당하였었다.

조선이 잘살고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공화국의 《위기설》에 대해 떠벌이며 미친듯이 쾌재를 불렀으며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박에 더욱 열을 올렸다.

바로 이 시각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200 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하도록 하시고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쳐주시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신 그이의 인민적인 조치에 의하여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피해복구

전투장에 총동원, 총집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사랑에 떠받들려 강력한 전투부대가 즉시 북부전역의 진지들을 차지하고 인민들의 보금자리건설전투에 진입하였으며 온 나라 각지에서 지원의 뜨거운 마음이 폭풍마냥 북부전선에로 달리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1 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강력한 조치들에 의하여 단 며칠동안에 일시 중단되였던 전력, 먹는물공급이 시작되였다.

도로와 통신망이 다시 이어져 식료품과 피복류, 의약품, 자재와 설비 등 피해복구용물자들과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 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과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지켜가던 인민군군인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앞을 다투며 도착하였다.

한편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흰쌀,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생활용품들이 공급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졌다. 뜻밖에 덮쳐든 자연재해로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교복과 민들레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이 안겨지고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행복의 야영길에 오르는 미래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났다.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인민을 위한 이런

중대조치가 취해진 례는 일찌기 없었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과 자력자강의 힘으로 전체 조선인민은 두달 남짓한 기간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천여리 두만강연안에 주체시대 사회주의 새 선경을 펼쳐놓고야말았다.

대재앙의 페허우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만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진것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꿈속에서조차 그려볼수도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당과 국가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더욱 순결해지고 혁명대오는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불패의 혼연일체로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령도자와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조선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

정치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은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는 현 국제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면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높은 정치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21 세기에 들어와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내정간섭책동에 의하여 많은 나라들이 곡절을 겪었으며 예상치 않았던 사태에 직면하여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박에 못이겨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전례없는 무질서가 조성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들은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정치로선을 옳바로 세우고 끝까지 틀어쥐고 나아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자기식의 정치로선을 똑바로 세우고 옳바른 정책들을 실시해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어떤 나라들은 갖은 정치풍파를 겪으며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좌왕우왕하였는가 하면 심각한 내전으로 대국들에 의해 조종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빠져들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정책적문제들을 자주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방향을 제시해야 인민들이 그 로선을 지지해나서게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무한한 힘이 발동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다.

자주정치야말로 그 어떤 시련과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영원불멸할 정의와 진리의 로선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무한히 발동하여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조선은 자주의 기치높이 전진해온 장구한 로정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않았고 외세의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았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의 강의한 신념은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 민족의 최고리익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적원칙성과 결단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의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주적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며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세계적인 강국을 일떠세우시는 21 세기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기기 매진해나갈것이다.

박차가 가해지는 과학기술력

자강력은 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력을 그 정수로 하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강력의 높이이자 과학기술력의 높이이며 자강력의 발휘정도는 과학기술력의 발휘정도에서 그 높이를 가늠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선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이 어느 정도 높이 발휘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조선의 과학기술수준정도와 그 양상을 통하여 살펴볼수 있다.

오늘 조선에서 과학기술은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것은 우선 제국주의자들의 제재가 심화되면 될수록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더욱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은 주체성과 자립성이 갖추어진 공업생산공정들,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 현대건축예술의 정수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비롯하여 자본주의를

압도하며 날에날마다 세계적수준의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바로 여기에는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한껏 발휘되고있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힘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휘하고있는 창조적힘에는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일떠선다는 민족자존의 정신력, 자력자강의 정신이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 105(2016)년 8 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이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해당 부문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현대화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확립은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의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이 《특수공정》은 조선인민의 과학기술력앞에서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놓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아크릴계칠감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것은 단순히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생산하는것을 보게 된것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조선의 과학기술의 힘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결합된것으로 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일떠서게

하는 최강의 힘으로 된다.

조선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수인 이러한 위대한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조선의 과학을 세계적높이에로 비약시키려 하고있다.

조선을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모두가 애국충정과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해나가는것이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인민은 전국도처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핵심기초기술과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고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부문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현대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기초기술로 되고있는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한것을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자기 식의 CNC 기술에 기초한 통합생산체계, 유연생산체계들을 개발도입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 104(2015)년에 전국적인 발명건수가 전해에 비해 111%이상 늘어났으며 주체 105(2016)년 한해동안에만도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580 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가 보다 튼튼히 다져지고 생산공정과 설비,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실현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평양자라공장, 원산구두공장, 류경김치공장과 같은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섰으며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을 비롯하여 주체화가 실현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된 단위들, 삼천메기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토지절약형, 물절약형의 공장, 기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대야금기지들에서 열간압연공정과 산소열법용광로와 같은 중요생산공정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였으며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세계적수준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이 확립된것을 비롯하여 중요공업부문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단 몇달동안에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가 자체의 기술로 개발생산되고 모든것이 주체화된 경비행기들이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기계설비들이 개발, 제작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이 계렬생산되고있다.

농업부문에서 다수확농작물품종들이 육성되고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우리 식의 생물농약,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들이 연구도입되여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지식산업의 시대에 맞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조선을 하루빨리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이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인재자원과 그들이 지닌 능력과 수준이다.

인재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인재가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과학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는 야심밑에 자기의 재부중의 재부인 인재자원육성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이것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인재의 자원확보는 결코 금전이나 권력에 의한 강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며 힘에 의해 해결되는것은 더우기 아니다.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규정짓는 인재의 자원확보는 명실공히 자체의 튼튼한 인재양성토대에 의거할 때만이 해당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답고 믿음직한 원동력으로 될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뿐아니라 사회경제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모두가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첨단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할데 대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녕 이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재해결의 근본방도를 주체적력량강화에서 찾고

전국에 확립된 정연한 인재양성체계에 기초하여 최단시일안에 조선을 인재가 숲을 이룬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자력자강의 로선이다.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마치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하여 현재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보급망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다.

조선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의 한복판에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심기지로서 전국의 과학기술보급망체계의 생활력을 발휘하게 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은 보다 현대화된 종합정보봉사체계를 확립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기술보급의 체계와 내용,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갱신완성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를 리용한 과학기술자료주문봉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특정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주문하여 봉사받을수 있으며 주문봉사를 받고있는 많은 단위들에서 실지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서는 가입단위들사이에 과학기술정보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여 기술토론, 성과와 경험교환, 새 기술과 제품소개가 이루어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계속 높아져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이 체계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봉사를 받는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인재력량이 강화되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새 기적창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지름길이 열리고 첨단을 돌파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으며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표준들이 마련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자강력의 정수인 과학기술력이 높이 과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은 머지않아 세계에 그 이름도 높은 과학기술강국으로 솟아오를것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경제로

오늘 조선의 경제건설분야에서는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중핵적인 문제로 내세우고있는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인민은 어려운 경제적난관을 자강력을 위대한 동력으로 하여 헤쳐나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에 대해서는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금속공업부문의 발전모습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선식의 제철, 제강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결과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도입되여 완벽한 생산정상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조선에는 지금 무진장한 석탄을 리용하여 주체철을 뽑는 생산공정이 전국의 중요제철, 제강기지들에 꾸려져있다.

주체철이 나오게 된것은 원료, 연료의 주체화를 실현한 결과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원료, 연료의 주체화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재료, 기본동력인 원료, 연료를 자체의 자원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견디여낼수 없으며 경제를 지속적으로 장성시켜나갈수 없다.

조선에서는 주체화의 열풍속에 주체철뿐아니라 자체의 원료, 기술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섬유가 생산되고 주체적인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이 확립되였다.

기간공업뿐아니라 화학공업과 경공업부문에서도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와 비날론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조선에 무진장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그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며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원료와 자재의 주체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서도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력량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이 지향하고 바라는 현대화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하여 전국도처에 수많은 주체화된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일떠서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이 마련되였다.

주체화된 조선의 경제강국건설은 조선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락관적이다. 조선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자력자강력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주체로 빛나는 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5. 자강력제일주의는 21세기 조선의 전략적로선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원동력인 자강력제일주의기치가 높이 휘날리고있다.

주체 105(2016)년 5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선인민이 발휘해온 자력자강의 정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되였으며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사상, 즉 자강력제일주의야말로 사회주의강국위업완성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전략적로선의 하나로 선포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적로선이라고 할때 그것은 혁명의 기본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혁명단계의 전기간에 견지되는 당의 일반적인 투쟁강령과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이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있는 자강력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다시말하여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믿음이며 자강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강력을 제일로 중시하고 자강력을 키우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을것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면서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단호히 배격할것을 요구한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강력제일주의는 오늘 추호도 변함없는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주되고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는것이다.

사실 현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을 말살하려고 하였으며 조선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주체 106(2017)년 적대세력들은 조선이 려명거리 건설에서 맥을 다 뽑았기때문에 북부피해지역복구는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나발을 불어댔지만 조선인민은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북부지역을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켜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 강의한 기상과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뿐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새형의 80hp 뜨락또르와 115hp 디젤기관을 리용한 5t 급화물자동차, 새형의 뻐스와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황금해》계렬의 만능화된 고기배와 5 000t 급무역짐배, CNC 기계, 여러가지 변압기와 전동기, 풍력발전기며 다용도, 다기능화된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같은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이룩해놓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선이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힘있게 선언하였다.

우에서 강조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은 인민의 리상과 강국부흥의 꿈,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도는 자강력제일주의에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만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정치사상적위력강화와 과학기술발전, 경제건설, 사상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을 확립하기 위한 거창한 력사적위업으로서 그것은 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에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조선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자체의 힘으로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으로서 그것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체의 힘으로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한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겠다는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다를바 없으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그 어느때가서도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외세가 철저히 배제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체의 통일력량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조선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지난 시기의 쓰라린 아픔을 간직하고있다.

외세는 조선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에서 찾고있으며 자체의 튼튼한 조국통일력량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족은 분렬의 비극을 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의 노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길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

조선인민은 오늘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평화번영할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맺 는 말

자력자강의 나라-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싶은것이 있다. 그것은 현시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갈망하는 세계 진보적나라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이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선택하여야 할 진리는 명백하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힘은 자강력에 있으며 자강력을 제일로 여기고 키우며 그에 의거하는데 있다는것이다. 자주의 강국으로 되기를 바라는 민족이라면 다름아닌 자강력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을 강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이 유린말살당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국제법이 적용되고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적대세력들은 저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세계 진보적인류가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 지역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침략과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고 국제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며 정의와 량심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